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24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담당자	• 삼산농산물검사소장 주광식 ☎440-5601 •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최은정 ☎440-8514 • 담당자 권성희 ☎440-560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농산물 관리로 식탁 안전 지켜
- 총 4,636건 중 51건(1.1%) 부적합, 647kg 폐기 조치 -

인천광역시는 2021년 인천에서 유통된 농산물 중 4,636건에 대한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고춧잎 등 51건(1.1%)이 부적합으로 나타나 647kg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의 대상은 도매시장에 일상적으로 반입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시기별 다소비 농산물과 학교 급식 농산물 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시기별로 부적합이 잦은 품목을 참고해 도매시장에 들여온 농산물 3,761건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온라인, 학교 급식 공급업체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875건을 선제적으로 수거·검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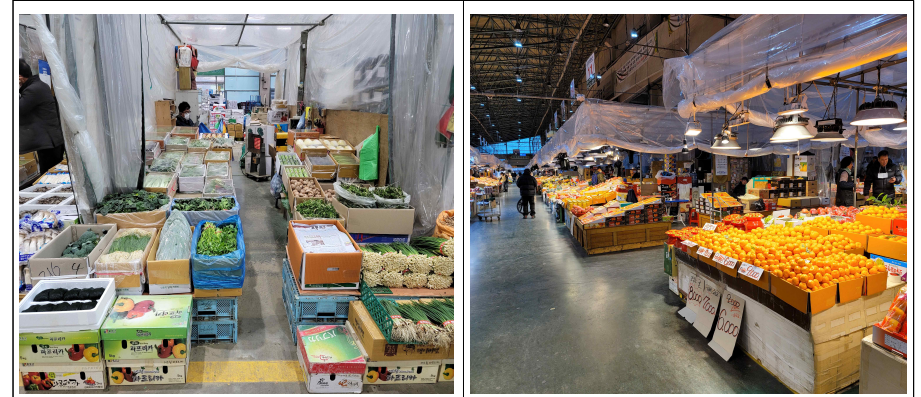
부적합은 고춧잎에서 9건, 쑥갓, 참나물에서 각각 5건 등 24개 품목에서 51건이 나왔으며 부적합품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행정지도·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긴급 통보했다.

한편 올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부적합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농산물 유통 길목인 도매시장에서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으며 경매 전 검사 건수(1,078건) 및 부적합률(2.2%) 모두 지난해(594건, 1.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수거 경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농산물도매시장 전경>